

분과 5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국어 평가와 교사의 역할

사회 : 구민지(가톨릭대학교)

비대면 한국어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 수행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장미라(경희사이버대학교)

1. 서론

이 연구는 비대면 한국어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해 교사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COVID 19 팬데믹은 사회, 경제, 문화, 정치를 비롯해 교육 분야에서도 급속한 변화를 촉발하였다. 그간 최신 기술을 접목한 교육 혁신이 꾸준히 진행돼 왔으나 대부분 전통적인 대면 교실 기반이었다.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교실 기반의 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한국어 교육도 비대면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성철(2012:87)은 교사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그들의 학습을 돕는 일이지만 사회마다, 교육 수준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 특히 현대의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까다롭고 복잡한 기능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개되어 온 언어 교수법이 교사의 역할을 각각 다르게 제시해 왔으며, 더불어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학습 환경에 따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IT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어 수업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자의 역할 내지 IT 통신을 이용해 토론과 학습 내용을 주고 받는 친구같은 통신자의 역할 등을 예로 제시하였다.

교육이 진행되는 교실의 환경적 변화는 교수학습 행위와 성취, 교사의 상호 관계에 있어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Sergiovanni & Carver(1980:42)는 학교 환경은 교사들이 하는 일, 교사들이 상호 관계를 맺는 방법 뿐 아니라 학생들의 성취와 그밖의 다른 것의 성취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Heck & William 1984; 황기우 역 1998:52).

이에 이 연구에서는 수업 변화의 수용 주체 내지는 활용 주체로서 교사에 주목하여, 전통적인 대면 교실에서 교육을 담당해 오던 한국어 교사가 맞닥뜨린 비대면 한국어 교실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비대면 한국어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 수행 양상과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2. 한국어 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

교사의 역할은 시대와 사회, 교육 기관, 대상 학습자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야기되어 왔다. 지식을 전수하는 데 초점이 놓여졌던 교사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어 왔고 교사는 지식 전수자뿐 아니라 학습 조력자, 격려자, 조언자, 상담자이

면서 학습자와 공감하는 친구와 같은 역할까지 다면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에 교육과정 설계자, 연구자, 행정업무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이해는 교사 양성 및 재교육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역할 기대와 역할 자각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한국어 교원의 역할과 자질에 관한 논의로는 윤희원(1999), 민현식(2005), 신성철(2009), 강승혜(2010) 등을 꼽을 수 있다.¹⁾

윤희원(1999)은 언어 지도 교사가 교사로서 ‘수업, 평가, 사회화를 돕는 기능, 생활 지도 및 상담’의 네 가지 기본적인 역할과 언어 지도 교사로서 교수-학습하는 부분을 중요시하였다. 언어 지도 교사는 언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교육 목표와 내용에 정통해야 하며, 설명, 시범할 수 있어야 한다. 교재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하고, 교사와 학생과 환경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고 적절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 결과의 해석과 평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민현식(2005)은 언어 교사로서 한국어 교사는 ‘교육자적 자질, 언어적 자질, 언어교육자적 자질’을 갖추고 관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교육자적 자질로는 ‘인간으로서의 교사, 동료로서의 교사, 학습자의 이해자로서의 교사, 학습의 촉진자로서의 교사, 관리자로서의 교사’ 등 11가지, 언어적 자질로는 ‘한국어 능력과 지식, 영어 능력과 지식, 학습자 모어 이해 및 구사 능력과 지식, 대조언어학적 지식’을, 언어교육자적 자질로는 ‘언어교수에 대한 지식, 교수환경과 교실 조건을 분석하는 기술, 필요에 따라 교수법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자신과 학생에 대한 정보 지식’ 등을 들었다.²⁾

신성철(2009)은 한국어 교사가 주요하게 인식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조사하면서, 선행 논의(Wright 1987; Nunan 1988, 1991; 최길시1998; Keblowska 2002; 민현식 2005; Arafat 2005 등)에서 제시하는 교사의 역할 가운데 공통적인 역할 16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수업 강사(Classroom instructor), 전문가(Expert/ resource person), 동기 부여자(Motivator), 평가자(Assessor)와 학습 파트너(Participant/study partner)’의 5가지를 여전히 높게 인식하지만 이외에 교실 분위기 주도자(Condition creator), 흥미 촉진자(Entertaining agent)뿐 아니라 연구자(Researcher), 통제자(Controller), 학습자(Learner), 친구(Friend)의 역할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강승혜(2010)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각한 좋은 한국어 교사의 특성에 주목하여, 한국어 학습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이 있는 학습 초기, 긴장감을 해소하고 학습동기를 고취하는 학습 과정, 성공적인 한국어 학습이라는 최종 목표이 성취되는 학습의 단계에서 교사가 ‘지식, 기술적 측면’에서 ‘기술적인 수업 운영’과 ‘능숙한 교실 관리 능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인성, 태도의 측면’에서는 ‘따뜻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평등, 존중, 열정, 도와줌 등 ‘지속적인 교사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1)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교사에 대한 논의는 백봉자(1991)의 ‘외국어로로서의 한국어 교사 훈련과 방법’이라는 논문을 통해 시작되었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어 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제시되었다. 이후 교사 양성과 재교육 관련 논의들에서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 교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되었다. 또 비영어권 교원과 특정 국가 내지는 특정 교육 기관 중심의 논의로 최윤곤(2009), 최윤정(2017), 최문정(2018), 김은혜(2019) 등이 있다.

2) 교육자적 자질은 Heck & William(1984)에서 제시한 11가지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언어교육자적 자질은 Brown(2001)에서 제시한 교사의 자질을 기반으로 하였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로는 전통적인 교실에서의 대면 수업 경험과 줌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수업 경험을 모두 가진 선생님을 물색하였다.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COVID 19 팬데믹 이전 전통적인 대면 교실에서의 교육 경험이 3년 이상이고 팬데믹 이후에도 동일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하면서 비대면 교실에서의 교육 경험이 있는 선생님을 선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면담에 응할 수 있으며, 사건이나 사실의 나열뿐 아니라 개인적 경험에 대한 진솔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선생님을 선정하였다.

비대면 교실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은 1년 반 전인 2020년 5월 경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초에 시작된 COVID 19의 영향으로 당시 3, 4월 학기 개강은 주로 연기되었고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4월 말 5월 초에 개강한 곳이 많았다. 선생님은 대학 졸업 후 교육부 파견 교사로 태국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귀국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르치다가 2017년 3월부터는 A교육 기관에서, 2019년 3월부터는 B교육 기관에서 강의를 시작하여 현재 두 교육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 대학 졸업(한국어 교육 전공), 한국어 교원 2급 자격 취득
- 교육부 파견 태국 중고등학교 한국어 교사(1년 반)
-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사(1년)
- 대학원 입학
- 국내 서울 소재 대학 부설 A한국어교육기관 한국어 강사(현재까지 4년 8개월)
- 국내 서울 소재 대학 부설 B한국어교육기관 한국어 강사(현재까지 2년 8개월)

3.2 연구 방법

인물 사례 형태로 진행되는 초상화법³⁾에서 도입되는 심층면담 기법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면담과 달리 훨씬 집중을 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로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관련되는 내용에 따라 질문을 하되 처음에는 면담자와의 보편적 통로를 여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 통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상호 이해의 바탕을 마련하여야 한다. 면담자와의 보편적 통로가 충분히 확보되면 타당도(연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의 적합성)와 신뢰도(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보편성)가 높아지게 된다. 면담이 시작되어 연구자가 후속 질문을 던질 때는 연구 목적에 따라 연구 참여자와 같은 편의 편에 서서 반 발짝 앞서 나가는 듯이 하여야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전영국 외 2013).

심층 면담은 지속적인 자료 해석과 후속 면담에 대한 구상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삶 속에 보관되어 있는 경험을 통하여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통하여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를 캐내도록 하는 면담이 심층면

3) 생애사 연구방법에서 다루는 내러티브 면담 기법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주요 사건과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면담이 진행 된다. 이와 달리 초상화법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와 가슴을 터놓고 주제를 같이 탐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면담이 진행되는 측면에서 다르다(전영국 외 2013).

담이다. 이것을 통하여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심층적인 이미지, 의식, 상태의 변화를 말로써 적극적으로 포착하게 된다. 심층 면담 자료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 결과는 연구자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본질적인 연결고리에 터하여 삶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제공하게 된다(Witz, Goodwin, Hart & Thomas 2001; Witz, 2006).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말을 경청하면서 요약하여 확인받지 않고, 면담 직후 전사하면서 자료 정리를 하고 후속 질문을 질문한다. 그리고 면담자인 연구자가 질문을 하면 연구 참여자는 즉시 반응하여 말을 하되 자신의 느낌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약간 회상하면서 생생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도록 한다.

3.3 연구도구 및 내용

심층면담을 위하여 먼저 사전 만남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 등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심층면담 일정을 잡았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준비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한국어 교사의 역할에 대한 경험과 그에 대한 생각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질적 연구의 특성상 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동기, 예비 한국어 교사로서 가졌던 꿈과 비전, 처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의 느낌, 보람과 어려움, 한국어를 가르치며 느끼는 보람과 어려움,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서 느끼는 보람과 어려움, 좋은 한국어 교사에 대한 생각과 교사 역할에 대한 생각의 변화, 교사로서 학습자와의 관계형성, 직업적 갈등은 무엇인지 등을 다루었다.

3.4 자료 분석

초상화법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면담을 진행한다. 먼저 면담을 통하여 연구참여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했으며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부각되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될 수 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면담을 진행하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한편이 되어 좀 더 넓고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 마지막으로 2-3차례의 후속 면담을 실시하고 연구 참여자의 경험 속에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부각되는 측면을 집중적으로 살피도록 노력한다.

연구 참여자의 면담은 2021년 9월과 10월 초에 두 차례 진행되었으며 면담에 앞서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 및 질문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후 면담 시간을 협의 하였다. 면담은 비대면 실시간으로 진행되었고 줌의 녹화 기능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익명처리를 한다는 것을 밝혔다. 면담은 각각 60분씩 소요되었고 후속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층면담을 통하여 드러나는 자료 중에서 '생생한 인용구'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초상화법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연구 참여자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같이 연구주제를 탐색해 나감으로써 상호 교감하면서 연구주제에 관한 내면의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면담의 진행은 성공적인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다(Witz 2006; 전영국 외 2013).

4.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 참여자는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할 때는 한국어 교사에 대해 막연한 기대 정도만 가지고 있다가 졸업하던 해에 교수님들의 권유로 교육부의 한국어 교사 파견 사업에 신청하고 그해 10월에 태국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한국

어를 가르치며 한국어 교사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학에서) 뭔가 실제적인 현장에서 뭐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있었지만(배웠지만) …… 하면 잘 할 수 있겠다 정도 …… 막연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좀 익힌 부분이 더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4.1 해외 한국어 교사로서의 경험

(1) 수업 계획하기

“그때는 어떻게 하든 한국어를 잘 가르쳐서 한국어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욕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접근하고 …… 계획도 세우고 이만큼 진도를 나가면 학생들이 이 정도의 결과는 보여줘야 하지 않나. 이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갔는데 …… 사실 첫 학기는 제가 잘 가르쳤다가보다는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줘서 수업이 진행이 됐었던 거 같아요.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실수 많이 하면서”

(2) 학습자 상황 이해하기

“두 번째 학기부터는 조금 더 루즈하게 갔던 것 같아요 …… 사실 거기는 외국어를 취미 삼아 흥미 삼아 배우는 상황 이어서 진도라든가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재미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요구가 많았었어요. …… 그리고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받는 거였어요. …… 행사가 많아서 한국어 수업을 꾸준히 하지 못했어요. 이 주 정도 한국어 수업을 못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실력을 차근차근 쌓는 것에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어가 어렵지 않구나, 내가 나중에라도 원하면 배울 수 있는 언어구나 이런 부분에 집중하게 됐어요.”

(3) 학습자 모어 배우기

“태국으로 파견을 갔었는데 …… 워낙 언어가 다르고 제가 갔던 곳이 깊숙한 지방이다 보니 영어로 간단한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 첫날 자모수업을 하고 수업이 끝났어요. 학생들에게 끝났다 안녕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실 이동을 해야 하는데 ……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먼저 나가 버렸더니 그제서야 학생들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 사실 그때는 현지어를 배우는 데 주력했던 것 같아요. …… 이해를 도와주고 싶어서 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어하고 현지어 발음하고 비슷한 것을 찾아서 비교해서 설명하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4) 한국 문화 알리기

“그때는 한국어 수업을 했고 문화 수업을 많이 했어요. 음식 만들기, 한복 입히기 ……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비빔밥 만들기를 시연하고 떡볶이를 시식하게 하고 한복을 입고 요리를 했었어요. 그 곳이 실크가 유명한 곳이어서 학생들이 패션쇼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은 한복 패션쇼도 했고 …… 아무래도 보여줬으면 하고 바라는 게 많아서 약기를 전공하거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고민을 했어요.”

(5) 교사로서의 성장에 대해 고민하기

“학생들이 만나기 힘든 한국인이다 보니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주었고 ……사실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가르쳐줘야 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현지에서는 한국어 지식보다 재미있게 쉽게 다가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후반으로 갈수록 현지에 남아서 수업을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국내로 돌아가야 하는가 해외에서 수업을 한다면 과연 미래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4.2 국내 대학 부설 교육 기관 교사로서의 경험

(1) 동료 교사와 협력하기

“일단 현지에서는 저 혼자이고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결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옳은지 잘하고 있는지 ……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있지만 누군가를 통해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 여기에 오니 더 먼저 가르치고 계셨던 선생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도 이런 걸 지키고 이런 방식이 좋겠다 하는 것도 실감하고요”

“기관에서 전체가 함께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걸 원하다 보니 선생님들과 공동 작업을 많이 했는데 교안이나 시험이나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됐어요. 시야도 넓힐 수 있게 되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선생님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 이런 게 도움이 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경험도 됐고요.”

(2) 학습자와 소통하기

“이제 (태국에서와 다르게) 한국어만 사용해서 수업을 해야 하니까 전달 방법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수업적인 부분만 아니라 밥은 먹었는지 그 드라마를 봤는지 쉬는 시간이나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학생이 이야기하면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다음에 이야기해 주면 …… 학생들이 수업도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하고 결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3) 한국 생활 안내하기

“한국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고향을 떠나서 혼자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 관심을 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4) 새로운 프로그램 준비하기

“그 당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회화를 위주로 하는 반을 만들어 보고 싶어했는데 제가 그 반을 맡아 운영해 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 그 반을 맡은 두 명의 선생님이 그 반에 맞는 새 교재로 학기 계획도 짜고 진도도 정하고 자료가 있는 사이트에 문의도 많이 하고요.”

4.3 비대면 교실 수업에 대한 경험

(1) 다양한 교실 환경에 적응하기

“작년 4월에 개강이었는데 처음에는 개강을 연기했다가 5월에 늦게 개강을 했어요. 괜찮아졌다고 생각하고 교실 수업을 열었다가 중간에 확진자가 늘면서 비대면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잠시 강의를 녹화하는 녹화 수업도 했고요,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진행될 때는 실시간으로 줌으로 수업했고요. 교실에서 수업하면서 온라인 교실을 열어두는 수업도 있어요.”

“오프라인 수업인데 학생 중에 불안해서 학교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온라인을 열어서 교실 수업을 생중계하듯이 하는, 항상 모든 수업이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이에요.”

(2) 수업 운영 기술 익히기

“온라인 수업을 처음 할 때 도구 선택이나 사용법에 대한 기본 지침은 있었지만 도구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보니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판서할 때 글자도 안 예쁘게 쓰고 잘 보이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말하기나 짝활동 시키기도 어렵고. …… 지금은 온라인에서 판서하는 것도 익숙해졌고 패드로 판서도 하고 자료도 바로 보내고 편리해

요.”

“이제는 퀴즐렛이나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요. … 온라인도 오프라인처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 일단 다양한 시도를 안 한 가장 큰 이유는 해외에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중국의 경우 허용되지 않은 앱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도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을 기다려주는 시간이 더 있다 보니까 진도를 나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3) 수업 전달력 높이기

“온오프가 같이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온라인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 판서를 따로 하기도 어렵고 오프라인 학생들 중심으로만 수업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게 좀 어려워요. 지금도 고민이 많이 돼요. …… 온오프를 함께하는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칠판 판서를 하게 돼요. 그럼 온라인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판서가 잘 안 보일 상황도 생기고 …… 교실 칠판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메라를 조금 멀리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판서하다가 카메라가 찍히는 부분을 벗어나서 판서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또 교실 칠판이 유리재질이어서 각도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도 생기고”

“처음에는 판서를 어떻게 해야 하나부터 예전에는 제스처도 많이 사용했는데 모니터에서는 얼굴이나 어깨 정도만 보이니 전달이 잘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 지금은 온라인만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속도에 맞춰 판서도 하고 PPT로 제공할 수 있어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교사가 교실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니까 전달력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서, 마스크 때문에 내 발음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으면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으로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게 돼요. 그래서 목에 무리도 가고요. 잘 들려요? 잘 보여요? 라는 질문도 의식적으로 많이 하고요. …… 오히려 요즘은 모두 온라인 수업을 하면 마스크를 안 쓰니까 전달력 부분에서는 장점이더라고요 ”

“온라인 수업에서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수업하면서 한 두 가지 놓치고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온라인 수업할 때는 자료를 보면서 체크하면서 할 수 있어서 준비한 것을 오히려 놓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전달 방법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4) 학습자의 참여 이끌어내기

“수업을 하면서 오프라인 교실에 있는 학생들과 똑같은 빈도로 질문도 하고 읽기도 시키고 말하기도 시키지만 아무래도 속도 차이도 있고 …… 온라인상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하기도 하고 …… 오프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온라인 학생들을 기다려주면서 수업이 늘어진다고 생각하고 온라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관심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맞춰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중간에서 조금 힘이 들게 돼요.”

“처음에는 온라인 학생들을 잘 챙기기 어려웠는데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온라인 학생과 오프라인 학생들을 비슷하게 참여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함이 필요로 해요.”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나 모니터가 달라서, 어떤 기관은 교실 컴퓨터가 커다란 모니터를 통해 자료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어서 온라인 학생들의 얼굴을 바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 참여 수업할 때 이러한 상황이 아무래도 조금 방해가 돼요.”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모두 카메라를 켜게 하고 최대한 자주 이름을 불러요.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어요. …… 자주 부르면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아요. 만약 한 번도 학생 이름을 안 불렀다면 다음 수업 시간에 (학생이) 안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려고 노력해요. …… 만약 학생이 마음 먹고 카메라를 켜지 않거나 마이크를 꺼 놓으면 힘들어져요.”

“온라인 학생들은 혼자 있다 보니까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도록 환기시키는 것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요. 또 주변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 집중도가 달라지고 영향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옆에 누구 있어요? 혼자 있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래서요.”

(5) 학습자 간 상호작용 촉진하기

“온오프 수업일 때 컴퓨터 스피커를 켜 놓고 온라인에 있는 학생들의 소리를 함께 들어요. …… 그런데 속도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다 같이 읽으세요 했는데 오프라인 학생들은 읽는데 온라인 학생들은 안 읽는 경우가 있어요. 참여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속도 차이로 오프 학생들 다 읽었는데 온라인 학생들이 계속 읽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걸 조금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 학생들이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느낌도 들고요 …… 온라인 학생들이 질문을 바로 대답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같은 활동도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면 오프라인 학생들이 그 사이에 잡담을 하거나 해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늘 고민해요. 공동작업을 하기도 어렵고요. 아무래도 진도 위주 수업이 되는 것 같아서”
“우리는 같은 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해요. 온라인 학생과 오프라인 학생이 함께 활동을 하도록도 해요. 스피커로 소리가 들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는 활동을 함께 하도록 해요.”

(6) SNS로 소통하기

“이해할 수 없는데 분위기상 질문을 못하는 학생들도 생기고요. 그럼 따로 카톡으로 질문을 해요. 그럼 쉬는 시간에 확인하고 따로 답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효율적인 방법을 많이 찾아요.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한국에 없는 학생들은 중국 학생들은 위챗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같은 반인데 단톡방도 두 개를 관리해야 해요.”

“학생들을 못 보니까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요. 예전 같으면 더 잘해 줄 수 있었을 텐데 특히 말하기나 쓰기 수업에서 좀 더 이제 더 도와줄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최대한 도와주지만 그래도 내가 준 피드백을 잘 확인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다음에 학생이 발전되는 게 보이지 않으면 아쉬움이 남을 때가 있어요.”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업무량이 늘어났어요. 온라인 학생의 숙제 피드백, 질문에 대한 답이든 모든 것을 수업 외적인 시간에 해야 해요. 학생들이 숙제를 보내는 시간도 정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일이 안 끝나고 계속 일하는 시간이 연장되는 느낌이에요.”

(7) 협력적 관계 모색하기

“학생과의 관계가 예전같이 않아요. 교실에 있는 학생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한 학기가 끝나도 얼굴 한 번 못 보기도 해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예전만큼 가깝지 않아요.

오히려 온라인은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좋은데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이전처럼 친밀한 관계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면서 학교에 오는 횟수도 줄었어요. 아무래도 선생님들을 만나기 어렵고 학교 자체 내에서도 선생님들이 다함께 만나는 자리가 일체 없어지다 보니까 ……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해주고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오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는 한국어 교육을 담당해 오면서 수업에서의 역할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었다. Brown(1995: 186-187)이 제시한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 중에서 신임 교사일 때는 ‘학습자 요구분석가, 학습자를 위한 입력 제공자, 동기 부여자, 자료 개발자’의 역할에 집중하다가 점차 ‘상담자이자 친구’로 역할이 확대되었고, 비대면 교실에서는 ‘학습자 행동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자, 학습 감시자’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수업 외에 연구 참여자는 비대면 교실이 증가되면서 다양한 비대면 수업 운영 기술을 익히는 데 주력하였고 다양해진 학습자의 학습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와의 소통, 동료 교사와의 협력적 관계가 어려워진 상황을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 참고문헌 ■

- 강승혜(2010),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각한 ‘좋은’ 한국어 교사의 특성, *한국어교육* 21_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은혜(2019), 한국어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교사효능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_재미한글학교를 중심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2005), 한국어 교사론_21세기 한국어 교사의 자질과 역할, *한국어교육* 16_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신성철(2009), 언어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87-90쪽.
- 윤희원(1999), 언어 지도 교사의 전문성. *학술대회논문집, 한국어교육학회*, 139-150쪽.
- 전영국(2017), 질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면담 및 심층면담에 관한 비교 고찰, *열린교육연구* 25_1, 한국열린교육학회, 147-168쪽.
- 전영국 외(2013), 초상화법에서 사용되는 심층면담에 관한 탐구: 동반자적 관계 형성과 주관적 요소 탐색을 중심으로. *교육인류학 연구*, 16(3), 1-29.
- 정진욱 외(2020), 원격수업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역할 중요도, 실행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_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진영아(2017), 비계형성자로서의 한국어 교사의 역할 연구, *한국어교육연구* 7, 한국어교육연구학회.
- 최문정(2018), 비원어민 한국어 교원의 교사 효능감과 역할 수행 인식 연구_태국 대학을 중심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윤곤(2009), 비원어민 한국어교원의 역할과 현황_중국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최윤정(2017),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 연구: 교사 인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rown, H. Douglas(1995),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ongman, 이흥수 외 공역(2002), *외국어 학습 교수의 원리*, Pearson Education Korea.
- Brown, H. Douglas(2001), *Teaching by principles :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Longman, 권오량 외 공역(2001), *원리에 의한 교수:언어 교육에의 상호작용적 접근법*, Pearson Education Korea.
- Heck, Shirley F. & William, C. Ray (1984) *The Complex roles of the teachers*,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황기우 역(1998), *21세기 교사의 역할*, 원미사.
- Hoyle, Eric(1969), *The role of the teacher*, London : Routledge & K. Paul ; New York : Humanities P., 안상원 역(1987), *교사의 역할*. 배영사.
- Witz, K.(2006), The participant as ally and essentialist portraiture. *Qualitative Inquiry*, 12, 246-268.
- Witz, K., Goodwin, D., Hart, R. S., & Thomas, S.(2001), An essentialist methodology in education-related research using in-depth interviews.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3(2), 195-227.

〈토론〉 “비대면 한국어 교실에서 교사의 역할 수행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에 대한 토론문

정미지(아주대학교)

이 연구는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비대면 수업이 학습자의 언어 능력 향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까 걱정스럽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가장 수고스러우실 많은 교사들의 심정과 소감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는 점에서 아주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완의 원고를 받아 읽다 보니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 발표자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이 논문에는 자세한 기술이 없어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해 양적 연구를 하는 것보다 한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한 사례 연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이러한 연구 방법이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양적 연구를 하는 것에 비해 어떠한 점에서 더 낫다고 연구자께서는 보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2. 이 연구에 참여하신 한 분의 교사는 현재 두 개의 대학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기관이 학습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육 환경이 다를 수 있고, 이 분이 경험하신 교육 상황도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100% 오프라인 교육, 현재는 100% 온라인 교육,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교육 등 세 가지 환경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교육하는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각 기관마다 제공하는 교육 환경이 동일한지 상이한지, 그리고 이분이 이 세 가지 교육을 모두 진행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다른 교육 환경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면담을 진행하고 분석을 하시면서 연구자께서 간접적으로 이 세 환경의 장, 단점이나 각 기관별 차이점 등에 대해 느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또 교육은 교육 대상이 어떤 학습자들인지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가 받은 글을 보면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기 전에 태국에서 교육을 하실 때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는 편이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교육 하는 상황에서는 학습자들이 어떤 학습자들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에 ‘중국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 . . 발표자께서 알고 계시는 연구 참여자의 학습자들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4. 또한 연구 참여자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수업 방식과 오프라인 수업 방식이 언어의 4 기능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각각 미치는 영향이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참여자가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 방식을 바꾼 후 이 네 기능을 교육함에 있어서 어느 기능이 가장 교육에 어려움이 크지, 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지 않은 기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신 내용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온라인 한국어 평가 도구 활용 연구

이화진(국민대학교)

1. 서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비대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한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히 비대면 수업의 개설 가능성 여부에만 그치지 않고 해당 수업이 온라인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에 여러 고등 교육 기관에서는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와 같은 체제의 도입을 통해 비대면 수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평가의 영역에 있어서 비대면 환경에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대면 환경의 원활한 교육 과정 진행은 물론 한국어 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특히 학습자들의 출입국과 이로 인한 자가격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의 특성상, 비대면 수업은 한국어 교육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대학 부설 기관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비대면 수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교과 과정의 편성도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합하며 비대면 환경에도 적용 가능한 평가 도구의 마련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개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영역별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는 관계로, 기존의 CBT(Computer Based Test), IBT(Internet Based Test) 등과 같은 시스템을 참고로 한 새로운 평가 도구의 마련에 보수적인 입장이 견지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몇몇 교육 기관에서 평가만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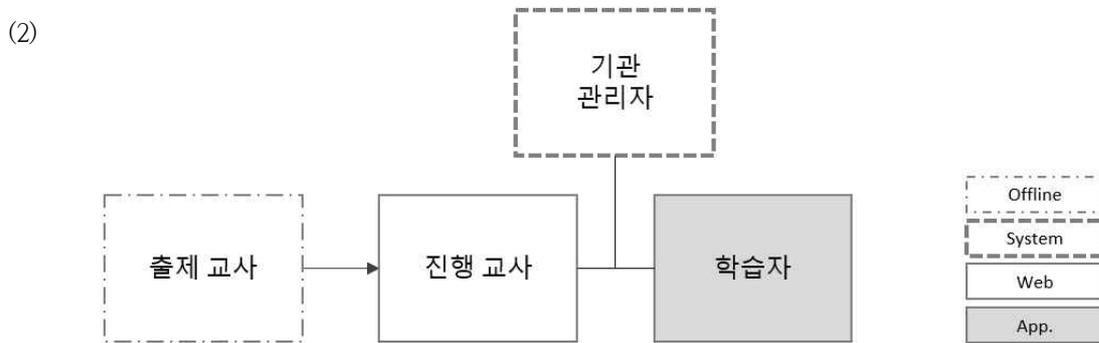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모바일 기반의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해당 앱(App.)이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일지를 가늠해 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해당 교육 기관의 평가 진행과 관련되는 과정을 알고리즘화함으로써 평가 시스템이 실제 평가 작업을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볼 것이다.

2. 평가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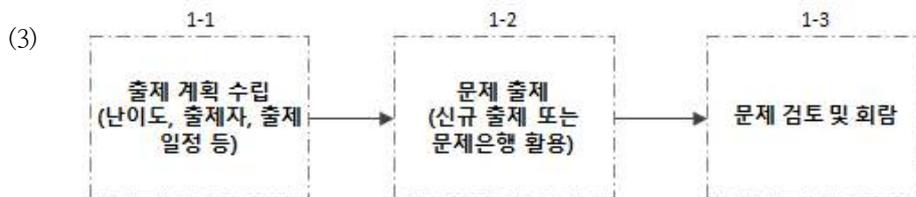
온라인 평가든 오프라인 평가든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평가 준비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평가와 달리 온라인 평가에서는 돌발적인 대응이 더 어려우므로 충분한 평가 준비가 필요하다. 본 실험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준비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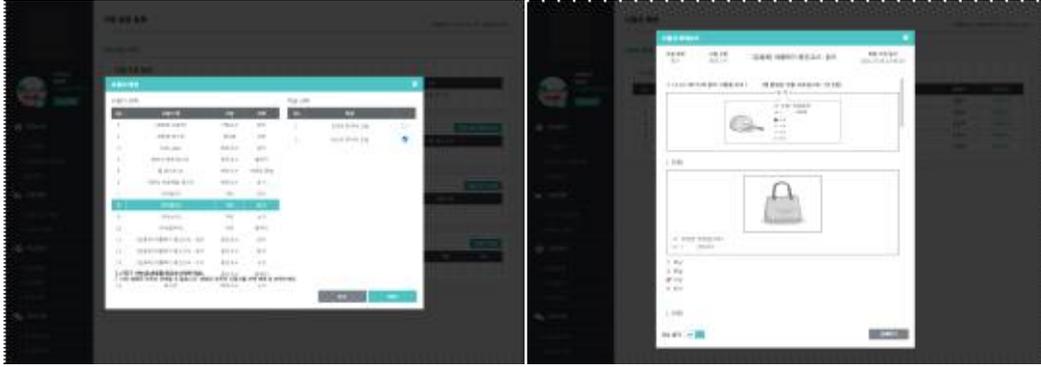
일반적인 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의 참여 주체는 크게 평가자인 교사와 평가 대상자인 학습자로 나뉠 수 있다. 교사의 경우 말할 것도 없이 위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학습자의 경우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3번 과정에만 참여하게 된다. 다만 온라인 환경에서의 평가를 염두에 둘 경우 평가 시스템을 통제하는 기관 및 관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평가 시스템의 관리 주체는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평가의 제반 사항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와 같은 돌발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처해야 한다. 즉 온라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를 진행하는 교사와 평가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온라인 접속 환경을 조성하는 관리자의 역할이 다음과 같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평가에 참여하는 교사의 역할 분담은 평가용 문제의 출제와 실제 평가의 준비 및 진행이 각각 오프라인 환경과 온라인 환경에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출제의 경우 반드시 온라인상의 평가 시스템 하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랜 시간 교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출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면 오히려 오프라인 환경이 해당 업무에 더 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1)의 1번 단계에 해당하는 출제는 오프라인에서 (2)의 출제 교사에 의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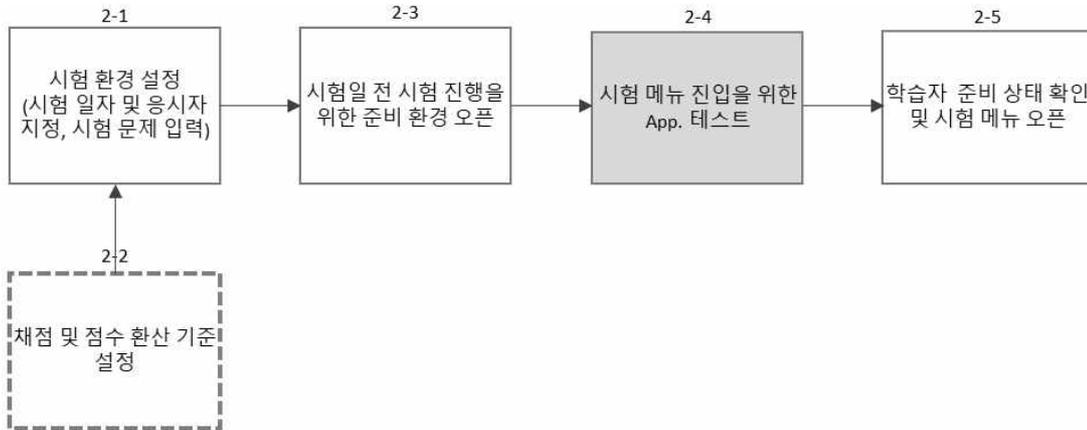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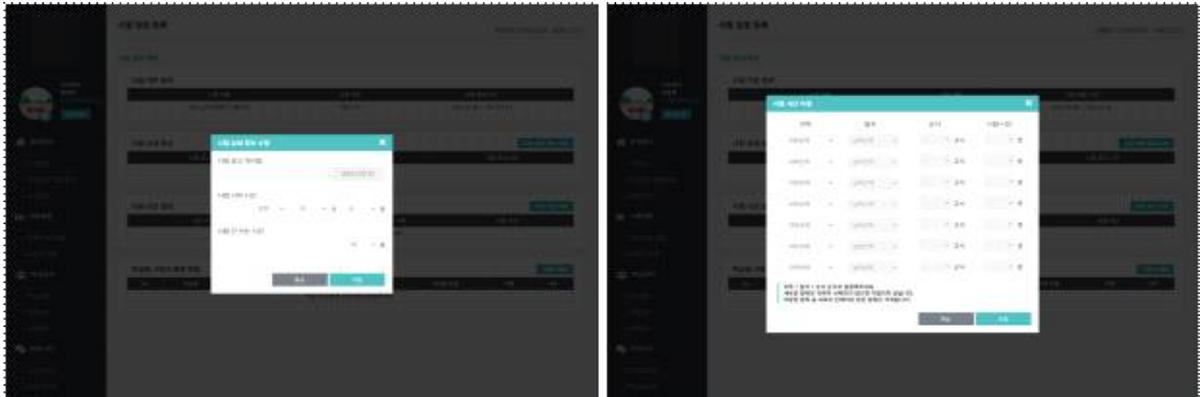


반면 평가 진행의 경우 (1)의 3번 단계에 해당하는 실제 시험의 진행뿐만 아니라 평가의 사전 준비 및 사후 처리까지 모두 평가 시스템 상에서 진행됨을 의미한다. 즉 (2)의 진행 교사는 출제된 평가용 문제를 최초로 시스템에 입력하는 작업부터 학습자들의 성적을 최종적으로 시스템 상에서 관리 및 보관하는 작업까지 담당하게 된다. 그 가운데 우선 (1)의 2번 단계에 해당하는 다음의 과정이 진행 교사에게 주어진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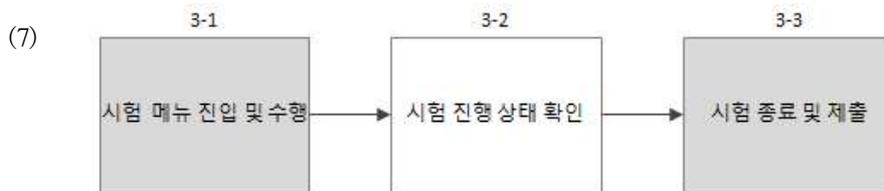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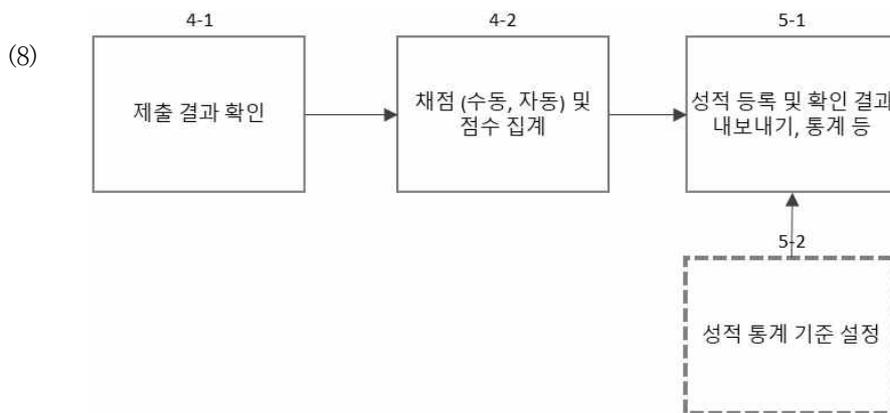
진행 교사는 먼저 평가 대상자인 학습자들의 목록을 입력함으로써 시험 당일에 해당 학습자들이 평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각각의 학습자들에게는 평가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부여된다. 다음

으로 출제된 문제를 입력하면서 시험 문제의 내용 및 양식이 변형 없이 평가 시스템에 올바르게 반영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함께 시스템 관리자는 (5)의 2-2와 같이 답안의 채점 기준을 평가 시스템에 미리 적용시켜 테스트함으로써 시험 문제의 오류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때 평가 기준의 적용은 시스템의 기술적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평가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음성인식(Speech Recognition),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AES(Automated Essay Scoring/Evaluation), 대화처리(Dialogue Processing) 등의 최신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의 적용 수준에 따라 기준에 온라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던 말하기, 쓰기 영역의 숙달도 평가도 온라인 평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평가 진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진행 교사는 시험 전에 온라인 평가 환경을 테스트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방하여 학습자들이 각각 본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해당 메뉴에 진입하도록 하게 된다.¹⁾ 이후 학습자들의 평가 환경 테스트가 완료되면 시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메뉴를 개방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 당일의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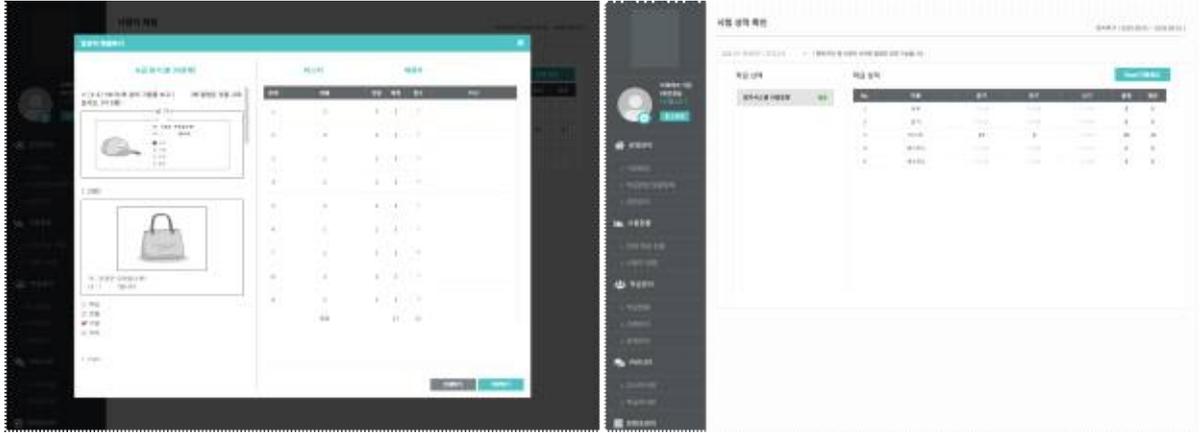


학습자는 실제 평가가 이루어지는 동안 앱을 통해 평가 시스템에 진입하여 시험에 임하게 되며, 평가를 진행하는 교사는 웹(Web)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평가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²⁾ 시험이 종료되면 학습자들은 본인의 휴대폰으로 평가 시스템에 결과를 올리고 담당 교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 결과를 처리하게 된다.



- 1) 온라인이라는 평가 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평가자의 혼란과 조작 오류로 평가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전 테스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온라인 평가의 추가적인 부담이기도 하지만, 용이한 반복 수행으로 시험 환경의 변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평가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진다.
- 2)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평가 간 부정행위와 같은 외부 변수가 정상적인 평가 진행과는 별개의 기술적 요인이 되므로 본 논의에서는 평가 간 부정행위에 대해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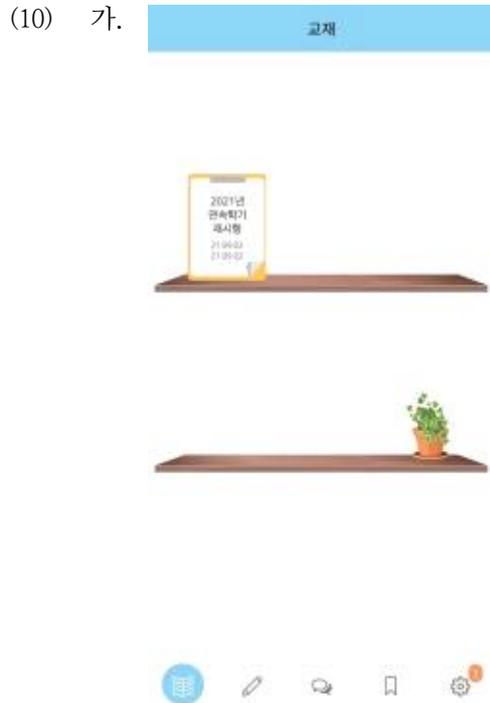
위의 4-2에 해당하는 시험 답안의 채점에는 기본적으로 (4)의 2-2에서 입력된 채점 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곧 채점 과정이 평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택형 객관식 문제의 경우 평가에 참여하는 교사가 채점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한 답답형 또는 서술형 주관식 문제의 경우에도 1차적으로 자연언어처리 도구에 기반한 답안의 채점이 이루어진 후에 평가 교사가 해당 답안을 확인 및 검토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채점 작업의 간소화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산출된 평가 결과는 학습자들이 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학급별, 교육 기관별 성적 통계도 평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3. 온라인 평가 도구의 사용자 경험

3.1. 학습자용 앱의 사용 환경

본 연구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어 교육용 온라인 평가 도구는 (주)이르테크에서 개발한 한국어 교육용 앱으로, 휴대폰을 통해 모든 영역의 한국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즉 쓰기, 읽기, 듣기 영역의 객관식 평가와 주관식 평가는 물론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통한 말하기 영역의 평가도 앱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최초 앱 구동 시 평가 대상자인 학습자들은 사전에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평가 시스템에 로그인하게 된다. 초기 화면에는 (10가)와 같이 (4)의 2-3에서 마련된 시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이 생성되어 있으며, (4)의 2-1에서 설정된 시험 개시 일시 전까지는 시험 문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10나)와 같이 평가 환경을 테스트하도록 안내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4)의 2-4에 해당하는 평가 환경의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시된다. 우선 (11가)와 같이 학습자의 휴대폰이 평가 시스템의 서버에 정상적으로 연결되는가를 점검한 후에 (11나)와 같이 듣기 평가에 필요한 음성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음으로 (11다)와 같이 학습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가 평가 시스템과 올바르게 연동되는가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는 작문과 같은 서답형 평가의 답안을 학습자가 직접 사진으로 찍어 올리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11라)와 같이 학습자 휴대폰의 마이크가 평가 시스템에서 문제없이 작동하는가를 점검하게 되는데, 이는 말하기 평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녹음하여 올리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과정이다. 이때 학습자는 제시된 텍스트를 녹음하고, 평가 시스템에서는 이를 음성인식 도구를 통해 발화의 정확도를 산출하게 된다.

(11)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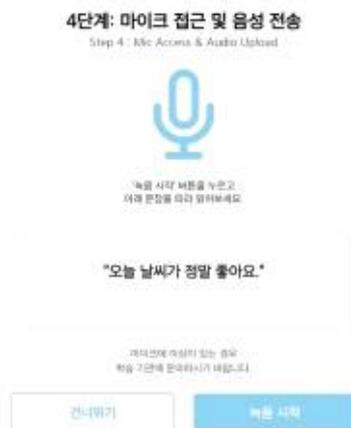
나.



다.



라.



위와 같이 평가 환경 점검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평가 영역별로 시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콘이 대기 화면 생성되며, (4)의 2-1에서 설정된 시간대별로 해당 영역의 시험 문제가 활성화된다. 이후 학습자는 시험 전에 공지된 시험 시간대에 맞추어 해당 영역의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평가가 완료된 영역은 (12나)와 같이 비활성화되어 이후 시험 문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진다.

(12) 가.



나.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학습자 휴대폰 화면의 상단에는 남은 시간이 표시되며, 주어진 시간 내에 평가를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 화면은 (12)의 평가 영역을 선택하는 대기 화면으로 자동 전환된다. 또한 학습자는 본인의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시험에 임하게 되는데, 객관식 문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되는 예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13) 가.



나.



주관식 문항의 경우 다음과 같이 답안을 작성하는 필드에 휴대폰으로 직접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한글 자판 입력에 익숙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한글 자판으로 내용을 입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학습자라면 해당 문항의 '카메라' 버튼을 눌러 수기로 직접 작성한 답안을 촬영하여 업로드할 수 있다.

(14) 가.



나.



듣기 평가의 경우 (11나)에서 내려받은 음성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되는 상황서 진행되며, 평가에 임하는 학습자들은 개인 이어폰을 통해 해당 내용을 청취하게 된다, 이때 음성 파일의 재생 상태는 다음과 같이 화면 상단에 고정되어 나타나는데, 이때 학습자가 재생 중인 내용을 임의로 일시중지시키거나 건너뛸 수 없다.

(15)



이상의 방법으로 답안 작성을 완료한 학습자는 각 평가 영역의 화면 맨 아래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누르고 다음과 같이 평가를 마치게 된다.

(16) 가.



나.



3.2. 학습자용 앱의 사용자 테스트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평가 시스템의 실제 사용 환경을 상정한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다음의 학습자들을 섭외하였다. 이들은 모두 한국어를 학습한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중고급 수준의 학습자들로 한글 자판을 다루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17)

번호	성명	국적	생년	성별	한국어 수준	학습 기간	TOPIK 급수
1	YAMADA *****	일본	1990	여	6급	32개월	6급
2	KAWANAKA **	일본	1995	여	4급	24개월	3급
3	YOKOYAMA *****	일본	1995	여	4급	36개월	2급
4	ISHIDA *****	일본	1994	여	4급	16개월	5급
5	HITOMI ****	일본	1997	여	4급	12개월	2급
6	XIAO **	중국	1998	여	4급	16개월	5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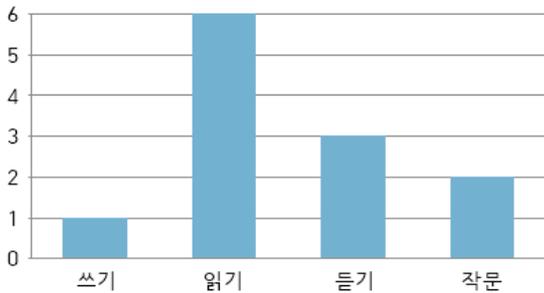
위의 학습자들은 동일한 시간대에 교실에 함께 모여서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 영역 모의 한국어 능력 평가를 각각 진행하였다. 학습자 모두 온라인 평가와 관련된 경험이 전무한 관계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앱의 설치 및 사용 방법과 시험의 진행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였다. 또한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앱의 사용자 경험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8)

설문 항목	질문 내용
평가의 필요성 및 적합성	① 온라인 한국어 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② 어떤 시험이 온라인 시험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③ 어떤 과목이 온라인 시험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평가 환경 전반	④ 온라인 접속이 편리했는가?
	⑤ 휴대폰 화면을 보는 것이 편리했는가?
	⑥ 답안을 입력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⑦ 녹음된 내용을 듣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⑧ 정상적인 속도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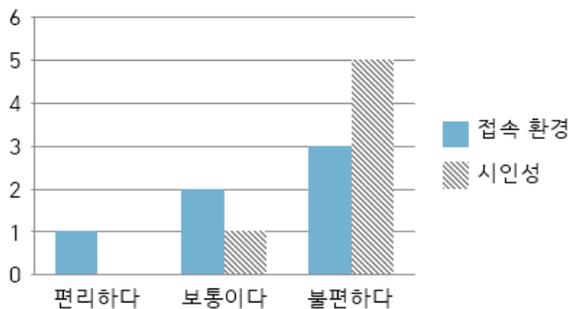
①번 질문에 대해서는 6명 중 1명이 긍정적인 응답을 했으며, ②번 질문에 대해서는 6명 중 5명이 레벨 테스트(level tset)를 꼽았고 나머지 1명이 정규 한국어 과정의 중간-기말 시험을 꼽았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③번 질문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이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는데, 모든 학습자가 읽기를 온라인 평가에 가장 적합한 영역으로 꼽은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자판 입력과 청취의 번거로움이 없는 읽기 평가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19) 온라인 평가에 적합한 과목



한편 ④, ⑤번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는데, ④번 질문의 경우 시험 당일 고사장의 무선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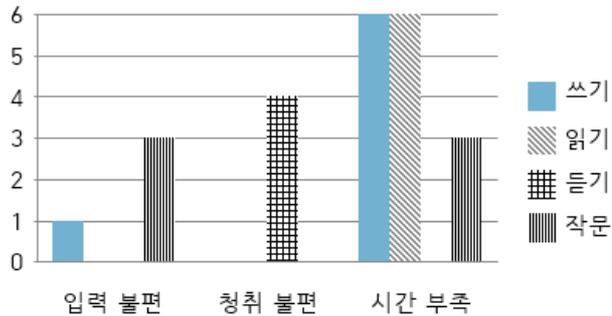
(20) 모바일 활용의 편의성



⑥, ⑦, ⑧번 질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응답은 과목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응답은 결과적으로 (19), (20)

과도 관련이 된다.

(21) 과목별 세부 의견



쓰기, 읽기의 경우 모든 학습자들이 부족한 시간을 문제점으로 꼽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텍스트를 독해해야 하는 해당 과목의 특성과 (20)에서도 나타난 모바일 환경의 낮은 시인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쓰기와 작문에서 각각 1명의 학습자와 3명의 학습자가 한글 자판 입력이 불편하다는 의견을 보였는데, 작문의 경우 쓰기에 비해 시간에 쫓기는 경향이 덜해 결과적으로 (19)과 같이 쓰기보다 온라인 평가로 진행하기에 더 적절하다고 응답한 듯하다.

4.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온라인 평가 도구 활용 방안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진단해 보았다. 온라인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평가자인 교사, 평가 대상자인 학습자, 평가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관 및 관리자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야 오프라인과 웹, 모바일 앱 등의 환경을 넘나들며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평가 과정에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성, 공정성 등의 덕목이 요구되는 평가의 특성상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수록 온라인 평가에 대한 수요도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오랫동안 비대면 수업의 환경에 노출되어 온 한국어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도 온라인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평가 도구가 제공하는 편의성이 분명히 존재하며 학습자들도 이를 일부 인정하나, 여전히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에서는 온라인 평가 시스템의 신뢰성과 평가용 앱의 접근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는 비교적 적은 인원으로 평가 도구의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온라인 말하기 평가 도구에 대한 사용자 경험의 분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토론〉 “온라인 한국어 평가 도구 활용 연구”에 대한 토론문

진대연(선문대학교)

먼저 재미있고 유익한 발표의 토론을 하게 해 주신 학회와 발표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발표의 목적과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그 의미를 언급한 후 몇 가지 요청과 질문을 드리는 형식으로 토론문을 구성하겠습니다.

발표자께서 밝히신 연구의 목적은 ‘현재 개발 단계에 있는 모바일 기반의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해당 앱(App)이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어느 정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일지를 가늠해 보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평가 준비’(2장)와 ‘온라인 평가 도구의 사용자 경험’(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는 최근의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절차를 잘 기술해 주었고 온라인 평가 앱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 발표를 계기로 한국어 교육에서도 온라인 평가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되고 관련 도구의 개발도 촉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한 바람에서 몇 가지 요청 또는 질문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비대면 교육 상황이 지속되면서 LMS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들이 많아졌습니다. 발표에서는 하나의 특정 업체에서 개발한 평가 도구를 기반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존 플랫폼들의 평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 ‘음성인식, OCR, AES, 대화처리’ 등 최신 자연언어처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던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말하기, 쓰기 평가에서도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면서 온라인 평가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시하신 자연언어처리 기술의 적용 현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청해 듣고 싶습니다.

3) ‘3.2. 학습자용 앱의 사용자 테스트’에서도 언급하셨듯이 한글 자판을 다루는 데 별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조차 쓰기를 온라인 평가에 적합하다고 한 경우는 극소수였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말하기 평가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졌지만 이것을 쓰기 평가에까지 적용하는 데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장차 본격적으로 모바일 쓰기 평가가 가능해지려면 어떤 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4) (19) 이하에서 ‘쓰기’와 ‘작문’을 구분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누신 것인지, 그 기준이 적합한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할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작문의 경우 쓰기에 비해 시간에 쫓기는 경향이 덜해’라고 하신 부분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가 문항 사례를 좀 보여 주시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발표의 결론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도 온라인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여전히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시면서 온라인 평가 시스템의 신뢰성과 평가용 앱에 대한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해 보신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가능한 범위에서 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토론거리를 제공해 주신 발표자께 감사드립니다.